

★ 드림레터 11월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29 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깨기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직업에 대한 편견과 오해

직업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

직업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 고정관념 및 남녀차별 관련 인식'에 관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기계 다루는 일에 능숙하지 못하다'라는 문항에는 50.7%가 긍정하여, 역할에 대한 편견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으나 **직업 고정관념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 : 통계청 포스트, 2018.07.20., 대한민국 성 역할 고정관념, 양성평등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Q. 우리나라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없는 편이다.

그렇다: 7.7% 아니다: 86.5% 모르겠다: 5.5%

Q.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다.

그렇다: 36.9% 다르지 않다: 56.0% 모르겠다: 7.1%

Q. 여자는 기계 다루는 일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렇다: 50.7% 아니다: 41.2% 모르겠다: 8.1%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18 성 고정관념 및 남녀차별 관련 인식 조사)

사회적 편견과 장벽을 넘은 사람들

온갖 사회적 편견과 장벽에도 불구하고 과학사에 이름을 남긴 많은 여성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진리탐구에 대한 열정으로 때로는 상상을 뛰어넘는 고난을 겪으며 그들은 매 순간 자신들 앞을 가로막는 편견과 차별에 맞섰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정신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미 해군 최초의 여성 제독 그레이스 호퍼입니다. 그녀는 세계 최초로 컴퓨터 컴파일러 언어와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COBOL)을 개발했으며, 미 해군 역사상 미사일 장착 구축함에 이름이 붙여진 최초의 여성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녀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것은 그녀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 볼 수 있죠. 그레이스 호퍼는 가장 위험한 말이 "우리는 지금까지 늘 이렇게 해왔어"라고 했습니다. **직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익숙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 황진명, 김유향(2017), 「과학의 일곱 기둥」)

진로교육 TIP 직업 고정관념 살펴보기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확인해봅시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성별, 인종, 학력, 신체적 장애, 직업군별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하단의 표를 보며 자녀와 함께 대화해보세요.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자녀와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사례	O/X	의견
중학교 졸업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부모님이 돈만 많다면 나는 굳이 일하지 않아도 돼.		
여자는 역시 아이를 돌보는 직업이 어울려.		
연예인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번대.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시켜야 해.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야.		
항공기 승무원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외모가 가장 중요하지.		
장애인에게 맞는 직업은 따로 있지.		
2년제보다 4년제 대학을 나와야 성공할 수 있대.		
머리를 쓰는 일이 몸을 쓰는 일보다 가치 있어.		
경찰, 소방관 등의 직업은 봉사적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을 따져서는 안 돼.		

(출처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_창의적 진로개발)

세상의 편견에 맞선 사람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배웠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특정 직업에 '그 사람의 가치'로 바라보며 편견을 무의식중에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최고의 직업으로 여기며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e스포츠 프로 선수

S팀 소속 프로 e스포츠 선수 이OO

각종 e스포츠 게임 대회에 참가하여 게임을 하는 사람. 정확한 판단력과 집중력, 분석적 사고를 이용해 빠르게 확장되어가는 e스포츠 세계를 선도합니다.

Q. 이번 2018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처음으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e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스포츠에 관해 이야기하면 양궁, 태권도보다 많이 등장하는 것이 '게임'입니다. 저는 게임이 당연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출전한 게임 종목은 전 세계 모두가 한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면서 e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Q. '게임은 노는 것'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2018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참가하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시정할 아시안게임에서 당당하게 메달을 거머쥘다면 e스포츠에 대한 이미지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e스포츠 유망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하고, 국제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출처 : 스포츠경향, 2018.08., F**** 이OO, "e스포츠 금메달 따면 부모님들 생각 달라질 것")

Q. e스포츠 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선수라는 직업은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즐겁지만은 않으며, 여타 직업들처럼 성공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도 생깁니다. 또한 아직 사회의 시선이 긍정적이지만 하지는 않아 힘이 되어줄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은 필수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2018.11., S팀 소속 이OO(F****)선수 인터뷰)



젊은 농부, 6차산업 대표

농촌 체험 농장 대표 이OO

농사만 지어 농작물을 판매하던 1차 산업의 대표격인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제2의 농촌 호황기를 이끄는 신(新)농민

Q. 젊은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만류하지 않았나요?

가족도 설득하지 못하면 어떤 소비자도 설득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만들어 놓고 가족부터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농업이 가능성의 시장이라는 것을 날마다 이해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Q. 농촌 체험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농업에 대한 낮은 인식, 즉 편견을 깨는 것이었어요. 소비자와 체험객이 생각하는 농촌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앞으로 해결해나갈 과제입니다. 그래서 경영적인 측면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소비자와 체험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편견을 바꿔보려 노력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농업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 소비자의 발걸음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추상적인 관념을 설득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서서히 공감해주고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게 느껴져 보람 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더리더 2018.10.13., 농업도 완성도 높이면 예술이 될 수 있다)

WEEKLY NEWS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누구나 평생 고민하는 자신의 진로, 정확하게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자녀 진학정보, 진로고민 상담,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학부모 진로교육 팟캐스트, **매주 화·목요일** 팟캐스트(iOS)&팟빵(Android)에서 만나보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최신편 들어보기▶



<특독! 꿈TALK!>

진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꿈을 찾아 달려가는 학생,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은 학부모, 학생들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선생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하단의 메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연과 그에 대한 전문가답변을 드림레터 또는 진로레시피에서 소개합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jinrohlp@naver.com>